손흥민, 70m 드리블 원더골…번리전 5-0 대승 견인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 이정표

모리뉴 감독 체제 첫 클린시트

'손세이셔널'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토트넘은 8일 오전 0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번리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 홈 경기에서 5-0 완승을 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승점 23점(6승5무5패)으로 8위에서 5위로 세 계단을 뛰어올랐다. 반면 번리는 승점 18점(5승3무8패)으로 13위에 머물렀다.

이날 손흥민은 '스페셜 원' 조제 모리뉴 감독 부임 이후 5경기 연속 선발 출전,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왼쪽 윙 포워드 역할을 맡았다. 아울러 전반에만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시즌 10호골을 기록하며 지난 2016-17시즌부터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더불어 리그 7호 도움으로 EPL 도움 랭킹 2위 자리도 지켰다.

토트넘은 전반 5분 만에 해리 케인의 멋진 골로 앞서갔다.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케인은 페널티 박스 앞에서 환상적인 오른발 중거리슛을 선보였고, 케인의 발을 떠난 공은 무회전 포물선을 그리며 그대로 번리의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은 이 골 과정에서 자신의 리그 7호 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의 기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전반 9분 손흥민으로부터 시작한 공격에서 추가골을 뽑아냈다. 손흥민은 측면 돌파에 이은 슈팅을 가져갔다. 이를 번리 골키퍼가 막아내고 이어진 문전 혼전 상황에서 흐른 공을 루카스 모우라가 그대로 헤딩슛으로 연결해 2-0으로 달아났다.

손흥민의 활약은 계속됐다. 전반 16분 페널티 박스 안으로 쇄도하던 무사 시소코에게 아웃프런트 패스로 일대일 상황을 만들어줬다. 시소코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추가 도움을 기록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반 32분 역습 상황에서 수비수 4명을 제치는 환상적인 돌파를 선보인 뒤 골을 기록, 토트넘 스타디움을 달궜다. 토트넘 진영에서 공을 잡아 상대 문전까지 약 70m를 폭풍처럼 내달려 스스로 골을 결정 지었다.

후반 들어서도 토트넘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후반 9분 해리 케인이 손흥민의 돌파 후 흘러나온 공을 잡은 뒤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다. 번리의 골망이 출렁이며 토트넘은 네 골 차로 앞서갔다.

이후 후반 29분 시소코가 케인과의 2대1 패스에 이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 오른발 토킥으로 센스있는 골을 뽑아내며 팀의 다섯 번째 골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이후 번리의 막판 공세를 잘 막으며 모리뉴 감독 체제 이후 처음으로 클린시트(무실점 경기)를 기록하며 5-0이라는 완벽한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뉴스1

'태권도 간판' 이대훈, 그랑프리 파이널 5연패 달성

한국, 올림픽 역대 최다 자동출전권 6장 확보

이대훈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1위를 차지한 뒤 시상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있는 모습.

한국 태권도 간판이자 '월드스타' 이대훈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5연패를 달성하며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대훈(27·대전광역시체육회)은 7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디나모 경기장에서 열린 '2019 세계태권도연맹(WT)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파이널' 남자 -68㎏급 결승에서 영국의 브래들른 신들을 41-12로 크게 이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대훈은 이로써 그랑프리 파이널 5년 연속 우승과 함께 그랑프리 시리즈 개인 통산 13승이란 대기록을 세웠다.

이대훈은 "올해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해 기쁘다. 주변에서 계속 우승을 못하다 보니 걱정이 많았는데 그 덕분에 마지막까지 집중할 수 있었다"며 "올림픽을 앞두고 우승해 자신감을 많이 되찾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남자 헤비급(+80㎏급) 인교돈(27·한국가스공사)은 이란의 마르다니 사자드를 꺾고 체급 왕중왕에 등극했다. 인교돈은 사자드를 상대로 20-10 완승을 했다.

이날 함께 결승에 오른 남자 -58㎏급 장준(19·한국체대)은 이탈리아의 비토 델야낄라에 패했다. 이로써 장준은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 푸자리아 대회 때부터 이어온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5회 연속 우승을 멈추게 됐다.

여자 -49㎏급 심재영(24·고양시청)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터키의 루키예 일디림을 상대로 패해 4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은 2020 도쿄올림픽 남녀 8체급 중 남녀 각 3체급씩 총 6체급에서 본선 자동 출전권을 따냈다. 이는 역대 최다 수치다.

남자 -80㎏급과 여자 -67㎏급만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80㎏급의 경우는 현재 그랜드슬램 2위를 기록 중인 남궁환(한국체대)이 연말 대회에서 1위로 올라서면 추가 출전권을 얻을 수 있다.

'70m 드리블 원더골" 손흥민의 겸손

"패스하려 했는데 알리가 안보였어"

70m 거리를 폭풍처럼 내달려 원더골을 만들어낸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이 "운이 좋았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손흥민은 8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번리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5-0 완승을 이끌었다.

시즌 10호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지난 2016-17시즌부터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더불어 리그 7호 도움으로 EPL 도움 랭킹 2위 자리도 지켰다.

전반 5분 해리 케인의 선제골을 도운 손흥민은 전반 32분 환상적인 드리블 선보이며 직접 골을 뽑아냈다. 토트넘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아챈 손흥민은 수비수 4명을 따돌리고 상대 문전까지 약 70m를 내달려 스스로 골을 결정지었다.

토트넘의 주장 해리 케인은 "소니(손흥민의 애칭)는 오늘 경기를 훔쳤다. 믿을 수 없는 골이었고 대단한 반격이었다"고 칭찬했다.

이어 케인은 "손흥민이 원하는 건 팀을 위해 뛰는 것 뿐"이라며 "그는 정말 자질이 뛰어나고 팀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강조했다.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을 레전드 스타 호나우두 나자리오(브라질)에 빗대 "손나우두"라고 부르며 찬사를 보냈다.

동료와 감독의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손흥민은 "운이 좋았다"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볼을 잡았을 때 델레 알리에게 패스하려고 했는데 알리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드리블을 했는데 타이밍과 운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처음부터 돌파해서 골을 넣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골을 넣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 앞서 박지성으로부터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국제선수상' 트로피를 전달받았다.

김아랑, 쇼트트랙 4차 월드컵 1500m 金…5년 만에 우승

김아랑(24·고양시청)이 5년 만에 쇼트트랙 월드컵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아랑은 7일(한국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9-2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25초066을 기록,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아랑이 월드컵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지난 2015년 2월 2014-15 월드컵 5차 대회 1000m 금메달 이후 5년여 만이다.

김아랑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대표팀 주장을 맡은 뒤 1년 동안 허리 부상에 신음했다. 이후 지난 4월 2019-20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해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한편 함께 결승에 오른 최민정(21·성남시청)은 2분25초269의 기록으로 김아랑의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남자 1500m 결승에서는 이준서(19·한국체대)가 2분21초652를 기록해 김아랑과 함께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